

동북아 역사 난장에서 일갈을 하다

김성철 교수,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수상

올 한 해도 불교 관련 논문들이 저명한 여러 학술지에 게재됐다. 그 논문들은 저마다 해당 분야에서 학문적 공헌을 했지만 대다수 논문에 쏟아지는 '상아탑에 갇힌 학문을 위한 논문'이라는 질책은 아쉽기만 하다.

논문이 상아탑의 담장을 넘어 대중적 공감을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발간하는 계간 <불교평론>이 올해 논문상으로 선정한 '삼론가의 호칭과 승량의 고유사상' <불교학연구> 제17집 게재에 그 좋은 본보기가 있다.

승량은 고구려 출신 승려다. 학술적으로 삼론종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하지만 그의 저서가 전해지지 않아 다른 이의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사상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불교 문헌에 승량 및 삼론종 논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 해석의 어려움까지 있었다. 여기에는 민족감정이 더해졌다. 중국과 일본 불교학자들은 삼론종에서 승량의 비중을 줄여 해석했지만, 한국 학자들은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똑같은 자료와 인물을 두고 한·중·일 동북아 삼국의 민족적 감정이 반영

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논문을 쓴 김성철 교수(동국대·사진)는 1년 동안 승량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연구 목적을 승량의 위상과 사상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데 뒀다. 기존 승량과 관련된 몇몇 문헌들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삼론종 관련 문헌들과 승량이 언급된 고승전 및 역사서, 비문들을 포함한 각종 자료에 대해 엄밀한 문헌학적 분석 작업을 했다.

그는 기존 연구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열거한 후 삼론종의 여러 호칭들이 사용된 용례를 분석했다. 각종 문헌들이 사용하는 호칭의 특성을 파악해 승량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호칭을 추적했다. 그의 연구는 호칭의 정리를 넘어 승량의 고유사상을 열두 가지로 서술했다.

<불교평론> 논문상 심사위원회는 "김 교수의 논문은 과소·과대평가됐던 승량의 위상을 객관적·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논쟁의 한가운데서 잊혀지고 곡해됐던 승량의 역사를 복원했다"고 당선 이유를 발표했다. 사회 이슈에 대한 불교학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논문이라는 것이 심사에 참가한 위원들의 평이다.

한편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불교평론> 조성택 편집주간(고려대 교수)과 편집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됐다. 조동섭 기자

누가 저 불상을 만들었을까?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 편찬돼

사람마다 정묘하게 모셔진 불상은 사람들에게 환희심과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불상은 그동안 어느 시대의 것인지만 중요했을 뿐 누가 만들었는지 주목받지 못했다. 불상을 보며 누구나 한번은 가졌을 "누가 만들었을까"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줄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그것은 바로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1600~1910) 때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과 이들 불상을 중수·개금한 승려장인의 활동이 나와 있다.

승장(僧匠)은 승려면서 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사전의 시기가 조선후기로 한정된 것은 임진왜란 때 다수의 조각승이 소실돼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중장과 중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책은 '언제 살았던 누가 어떤 불상을 만들어 이것이 지금은 어디에 모셔졌는지'를 말해 준다. 한 예로 '계초(戒初:1754~1790)는 1754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곡성 수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고, 1757년에 수화승 상장과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개금했다. 1790년 경기 화성 용유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중 석가불을 제작할 때, 전라도 정읍 내장사 통정대부로 언급돼 있다. 그는 18세기 전반의 조각승 진열과 상



정을 계승한 대표적 조각승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스님이 조성한 불상 사진이 수록돼 있다. 연구자들을 위해 문헌기록과 참고문헌도 빠지지 않았다.

이 책에 수록된 승장은 모두 942명으로 조선후기 300여년동안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승려들이다. 불상을 조성한 승장 뿐 아니라 118명의 수화승(首畫僧:불상 조성의 책임자)에도 주목했다. 수화승을 함께 기록한 것은 불교조각품 유통에 도움을 준다.

책을 쓴 최선일 박사(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는 이들을 찾아 3년간 전국 사찰에 발품을 팔았다. 불상의 발원지, 불화의 회기, 사찰의 사적기 또는 비문 등 300여건의 기록을 정리했다.

김리나 명예교수(홍익대)는 "이번 인명사전의 발간을 계기로 조선후기기를 넘어 전 시대에 걸친 조각승 뿐 아니라 불화승, 주조장(鑄造)만드는 승려, 도련수(목수) 등 다양한 불교미술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교회화' 편이 출간될 예정이다. (02)718-4831 조동섭 기자

부여 왕흥사지 사리구 성분 확인대

사리병 98%이상 순금 다른병 순도 99%순은



백제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세웠던 부여 왕흥사지에서 지난 10월 발굴됐던 황금사리병(사진)이 순금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사리병 발굴 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 학연구실에 성분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12월 7일 발표됐다. 사리병은 98% 이상의 순금으로 제작돼 금제사리병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 병은 은 순도가 99% 인귀으로 순은으로 제작됐다.

발굴 당시 사리구에는 백색미 상물질이 있었다. 이것이 사리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납(Pb)

성분과 구리 성분이 검출돼 사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12월부터 2차로 심초석 납측에서 출토된 유리·옥 등 구슬류, 금제환, 흑·백색 유 기물질, 상평오수전, 사리병 내 부 액체물질 등 27건 59점에 대해서도 성분을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출토유물들의 재질규명, 산지추정, 제작기법 등이 확인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익산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전북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한 제석사지 익산토성 무양릉 등 백제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12월 10일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려 익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의 지역주민들의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올해 초 '고도(古都) 익산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익산의 관련 유

적과 유물 등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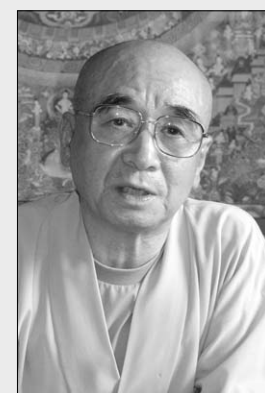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 유적협회(ICOMOS)의 현지파견 조사를 거쳐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마한 백제연구소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익산의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다"면서 "엄격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 역사지구는 '고도보존 특별법'에 따라 경주와 부여, 공주 등과 함께 '고도(古都)'로 지정된바 있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초산 스님 국민훈장 목련장 서훈

북관대첩비 반환 공로 인정받아



초산 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 이사장·사진)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서훈됐다. 스님은 일본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의 국내 반환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승전기념비다. 임진왜란 때 정문부의 의병장이 함경도 경성과 길주에서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숙종 34년(1707년) 길주군에 세워진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 중 일제에 약탈돼 그동안 아스쿠니 신사에 방치됐었다. 지난

2004년 금강산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된 이래 초산 스님은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을 통해 반환운동에 앞장섰고 지난 2006년 10월 20일 국내 반환을 이뤘다.

한편 12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2007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상식'에는 초산 스님의 훈장 서훈과 함께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문화유산상 봉사·활동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탁본의 대가'로 알려진 스님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성보박물관장으로 전통문화재 보존은 물론, 여러 차례의 기획전을 통해 성보박물관 운영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동섭 기자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육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중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육	35 혼자서 하는 민관육(간단한 관육)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정계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계)	45 화염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육건만다라선송다계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칭	

제10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법패 동계특별교육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중무소 ☎ 062)362-8604 / 해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학장 해공스님

진정한 승사님처럼 기도와 법패산도익식 교육을 잘 섞어 주는 교육 강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8년 제 10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민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법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제의식, 천도제,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결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 과 정 : 2년(4학기)
- ◆ 입 학 식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3시 ~ 5시30분까지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우 502-242)
- ◆ 학 장 : 해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법패교육기간

(2008년 1월 9일 ~ 1월 12일 3박 4일)

-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경의, 오후시간:실기교육위주)
- 1월 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육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1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깃소리놀이),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1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중하는법, 창흥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계기도하는 법
- 1월 1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육,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능숙기